

대학생 창작 뮤지컬 프로젝트 '청춘일기' 공연 성료

KT&G 상상유니브 전남운영사무국(국장 원장희)이 최근 대학생 뮤지컬 프로젝트 '유니-브로드웨이'의 창작 뮤지컬 '청춘일기' <사진>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 시민 및 대학생 관객 약 6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했다. <사진> '유니-브로드웨이'는 공연과 무대에 대한 꿈을 꾸는 대학생들을 선발해, 뮤지컬 배우로의 성장을 돕는 대학생 뮤지컬 지원 프로젝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뮤지컬단 '다락'과 함께 대학생에게 문화, 예술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오고 있으며, 그리스, 맘마미아, 아이다 등 총 5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 바 있다. 창작 뮤지컬 '청춘일기'는 대학생의 사연 공모를 통해 시나리오화한 작품이다. 연애, 우정, 군대 등 현대 청년의 감성과 고민을 읊어보시 형태로 담은 이야기로 구성해, 일상에서 겪는 고민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20대의 모습을



<KT&G 상상유니브 전남운영사무국 제공>

그러냈다. 원장희 KT&G 상상유니브 전남운영사무국장은 "앞으로도 대학생들에게 뮤지컬 배우로서 성장기회와 문화·예술 분야의 특별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T&G의 독창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상상유니브는 2010년 대학생 문화예술 커뮤니티로 출범해 문화, 예술 중심의 다양한 영역에서 배우고 교류,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커뮤니티로 성장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무등산무등길문화대학 '안내 해설사 교육과정' 수료식



<무등산무등길협의회 제공>

(사)무등산무등길협의회(상임의장 김인주) 부설 무등길문화대학(학장 노영희)이 운영하는 '무등길 안내 해설사 교육과정' 제9~10기 통합 수료식이 20일 무등산 증심사지구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지난 4~6월, 9~11월 각각 8주(6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정규 교육과 심화 교육 과정을 이수한 60명에게 수료증과 무등길 완주증을 수여했다. 무등길은 '무등산 자락의 천년 문화를 한 바퀴 돌아보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의미로 마을과 마을을 잇는 500년 안팎의 옛길을 1910년 작성된 지도를 토대로 발굴 복원한 무등산 둘레길이다. 무등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주역을 출발해 전남대와 각

화저수지를 거쳐 담양·화순, 광주천·푸른길을 돌아 다시 광주역까지 무등산 자락을 온전히 한 바퀴 도는 60km의 순환길이다. 무등길 안내 해설사 교육과정은 무등길 개척자의 해설과 함께 무등산과 무등길을 탐방하며 역사·문화·자연생태·독도법 등 종합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프로그램이다. 수료자들은 탐방 안내 등 해설 봉사자로 활동하며 무등길을 '지구촌 민주화운동의 성지순례길'이자 세계적인 명품길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게 된다. 이날 수료식에 앞서 참가자들은 윤림중학교에서 제1수원지 편백송, 의재미술관까지 생태문화탐방을 함께 했다. 한편 무등길 안내 해설사 교육과정은 광주문화재단 등이 공동 주최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나주오씨 금양군 오경 생애와 사상' 한국학호남진흥원 학술대회 성료



<한국학호남진흥원 제공>

한국학호남진흥원과 광산문화원이 주최한 '나주오씨 금양군 오경의 생애와 사상'을 다룬 학술대회가 최근 성료됐다. <사진>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열린 이번학술대회는 금양군 오경의 정치철학과 삶의 철학을 연구하고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양군 오경은 한평생 관직에 몸담은 후 75세에 재상으로 퇴직했다. 남원·담양부사, 광주목사, 전주부윤, 경상도관찰사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남원부사 재직 시에는 지방 수령 중 치적이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은 만큼 선정을 베풀 폭민관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직으로는 사헌부 대사헌, 병조판서, 이조판서, 의정부 우찬성·좌찬성을 역임하고 우의정에 이르렀다. 아울러 당대 석학인 퇴계 이황, 하서 김인후, 율곡 이이, 고봉 기대승의 선배로 조정에서 함께 근무하며 특별한 교류관계를 유지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금양군 오경의 생애와 사상' (광주유학대학교교수), '국재 오경 선생의 시문학' (안재철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등의 발표가 있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향후 한국유학사에 있어 호남의 맥을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 등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고려라이온스, 다문화가정에 온수매트 전달



광주고려라이온스(회장 나일광)는 최근 광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은미)에 관내 취약가정,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400만원 상당 사랑의 온수매트(35개)를 전달했다. <광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공>

광주기독병원 개원 116주년 기념예식 진행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최용수)이 최근 개원 116주년 기념 감사예식을 열었다. 광주기독병원은 1905년 '광주제중원'이란 이름으로 개원해 광주 현대의료를 시작한 곳으로, 개원 116주년을 기념해 광주제중병원 사진전, Q&A활동 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기독병원 제공>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for the date 11/22.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EBS1 programs including news, documentaries, and entertainment show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2일 (음 10월 18일 甲戌)
36년생 거시적인 관점으로 조망해야 대의를 도모할 수 있다. 48년생 어렵고 한 일이 우연히도 잘 들어맞을 수 있다. 60년생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허점이 드러난다. 72년생 마음을 비우고 수종의 것에 대한 관리를 잘 하자. 84년생 두루 살펴 볼 필요가 있다. 96년생 특징을 파악해야 처리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89
37년생 뜨거운 화재경리가 보인다. 49년생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해야 할 정도로 난처한 양태이다. 61년생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73년생 미연에 조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85년생 과거의 앙금을 털어버리고 흔연히 대하라. 97년생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03, 97
38년생 가는 곳마다 상서로움이 있다. 50년생 자연되면 손해를 부르니 속전속결하는 것이 생산성을 제고한다. 62년생 설악은 상태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자. 74년생 국면이 따라서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86년생 무리한 진행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98년생 가장 절실했던 일에 집중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39, 55
39년생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후회하리라. 51년생 파급 효과까지 감안한 후에 진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63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뒤따라 생각이 않을 것이다. 75년생 속 시원한 결말은 없고 계속 지연만 되는 동세이다. 87년생 판단이 섰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99년생 징후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운의 숫자 : 21, 67
40년생 가변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52년생 대인 접촉은 경계하는 것이 상책이다. 64년생 행방이 묘연하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살펴봐야겠다. 76년생 곧 요긴하게 쓸 때가 돌아올 것이니 잘 챙겨 두라. 88년생 털어낸 과일의 이치이니 느긋하게 기다려 줄 알아야겠다. 00년생 행방이 납쳐흐르겠다. 행운의 숫자 : 42, 64
41년생 임시분통이라면 문제가 속출할 수도 있다. 53년생 출구분통한 마음으로 입했을 때 더 나은 성과가 있다. 65년생 넓은 아량으로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7년생 오만하면 많은 피해가 따를 것이니 가볍게 움직이지 마라. 89년생 냉철하게 돌이켜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01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청 된다. 행운의 숫자 : 00, 69